

요절복통

여래네집

#42. 사람의 심리

스튜디오들

의출했다 돌아온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이 잔뜩 툭툭 부어있습니다.

도도! 어, 당신 친구들 만나 늦는다더니 일찍 들어왔네.

근데 엄마 표정이 왜 저렇지? 그러게.

알고보니 모처럼 튀어놀려고 양중맞은 모자와 목도리를 세트로 해서 귀여운 콘셉트로 코디하고 모임장소에 갔었는데 똑같이 하고 나온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아유, 신경질 나. 미순이 기집애는 왜 하필 그런 콘셉트로 꾸미고 나왔담.

그 친구도 그게 좋았나 보지 뭐.

우와!

뭐라구? 당신 정말 불안집에 부채질 하기에!

어?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깜짝이야.

잠깐, 여기서 남성 여러분께 드리는 팁 하나. 어떤 경우에도 여자가 화가 났을 때는 우선 그 여자의 말에 맞장구를 쳐 '나도 당신과 같은 심정이랍니다' 하고 신호를 보낸 후에 다음 말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에게 사랑받는 남자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특강
어떻게 하면 남자는 사랑을 받을까?

좋아요. 그럼 남자가 공히 알아야 할 수칙 하나! 남자에게는 그저 잘한다 잘한다 하는 칭찬이 약이고, 여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 예뻐요 하는 것이 약이다 이겁니다.

그 친구도 그게 좋았나 보지 뭐.

그렇지, 그럼 여기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

아빠, 이거 얘기가 너무 옆길로 새나가는 거 같은데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은근슬쩍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당신 얘기를 들으니 고등학교 때 빨간 추리닝 바지와 쪼리 생각이 나네.

빨간 추리닝 바지와 쪼리? 그게 무슨 얘기에요?

아빠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뒤에서 노는 애들 사이에서 빨간 추리닝 바지와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어서 신는 슬리퍼의 일종인 쪼리라는 것을 신고 다니는 것이 유행했답니다.

나도 개네편처럼 하고 다니고 싶지만 용기가 안나.

아냐. 까짓거 나도 눈 딱 감고 한번 해보는거야.

아빠는 한껏 용기를 내서 한 일이었지만 막상 거리에 나가서 보니

뭐야. 고등학교생치고 빨간 추리닝 바지와 쪼리를 안 신은 애가 하나도 없잖아.

도동

호호호, 옹기그네. 그때 알게 되게 '세상은 관심만 보인다'는 것이었어.

응, 그러니까 미처 빨간 추리닝을 입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사서 하고 보니 그렇게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 얘기가.

그래서 일찌기 무학 대사님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하신 모양이야.

관심이라... 그리고 보니 남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오늘 나 혼자만 신경을 쓰고 있었나봐.

그런데 엄마, 아빠. 나는 우리 개나리반이 다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가방 메고 다니는 게 좋던데.

그건 소속감이고.

관심과 소속감이야.

아빠 그럼 전에 체육대회 때 우리반이 단체티를 입었는데, 체육대회가 끝난 뒤로는 그걸 입고 학교 다니는 게 왠지 썩스러워 못 입었던데 그 심리는 뭐죠?

그거야 당연히 아니겠어. 전교생이 다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애기 나온김에 조금 더 얘기하면 커서도 단체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만의 개성에 따라 살고 싶어. 옷도 그렇게 입는 것을 좋아 한단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옷을 사려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거야. 그 개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개성일까?

그건 또 무슨 얘기에요. 도통 못 알아 들겠네.

나도, 나도.

아빠가 엄마한테 아가 통명스럽게 대꾸했던 게 미안한지 얘기가 길어집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말해 개성이지. 다른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라 얘기가. 가령 강아지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지만 구분도 안되지 않겠어?

점점 더 얘기가 이해가 안돼.

안돼.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어느 틈에 엄마의 기분을 풀려고 즐거운 간식도 나왔습니다.

야호, 호빵이다.

호빵이다.

호빵도 그냥 찐빵의 일종일 뿐인데 한 식품 회사에서...

어휴, 이제 그만 하시고 따끈할 때 좀 드세요.

어머니! 이걸로 우리 직업실 단체티 만들려고 하는데?

어휴, 관워요. 관워.

형이나 많이 입고 다니셔.

쪽팔려서 저걸 누가 입고 다녀.

이주일의 화두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마음입니다. 단행위를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실이야말로 맛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다.

《한글서체》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평소엔 잘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질 않는다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화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볍고 설치가 용이

원터치 고려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SMD LED전구(국산제품) AC 220V

이주 밝은 견본지 초(LED용)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 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율동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 방생, 탐불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